



유승민·주세혁
고수들 잔치
초청 받았다

ITTF 男 월드컵 탁구
참가 선수 16명 확정

남자 탁구 간판 유승민과 '수비 달인' 주세혁(이상 삼성생명)이 남자 월드컵에 참가한다. 국제탁구연맹(ITTF)은 1일(한국시간) 벨기에 리에주에서 오는 26~28일 열릴 남자 월드컵 초청 선수 16명 명단을 발표...

유승민(세계 8위)과 2003 파리 세계선수권대회 준우승자 주세혁(9위)은 나란히 초청을 받았다. 또 베이징올림픽 단식과 단체전 우승으로 2관왕에 오른 마린과 마린에게 겨...



권대회 챔피언 베르너 실라거(오스트리아)도 출전자 명단에 포함됐다. 유승민은 그러나 베이징올림픽 단체전 4강에서 왕하오에게 1-3으로 져 상대전적 2승1패로 크게 뒤져 있고 마린에게도 1승1패의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다...



1일(한국시간) 영국 게이트헤드에서 벌어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브리티시 그랑프리 대회' 100m결승에서 9초87로 우승한 아사파 파월(26·자메이카·왼쪽)에서 세 번째로 이 스피드하고 있다.

파월 100m·게이 200m 우승

브리티시그랑프리 육상

베이징올림픽 남자 육상 100m에서 '번개' 우사인 볼트(22·자메이카)에게 완패한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파 파월(26·자메이카)과 타이슨 게이(26·미국)가 부활을 향...

한 기지개를 쳤다. 파월과 게이는 1일(한국시간) 영국 게이트헤드에서 벌어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브리티시 그랑프리 대회 100m와 200m에서 각각 우승했다. 베이징올림픽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95로 5위에 그쳤던 파월은 이날 100m 결승에서 9초87을 찍으며 팀 동료 네스타 카터...

(10초13)를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게이도 200m에서 20초26으로 팀 동료 윌러스 스피어먼(20초41)을 꺾고 정상상을 밟았다. 게이는 미국대표선발전 100m에서 1위를 했지만 정작 올림픽 100m에서는 준결승 5위에 그쳐 결승에 오르지 못하고 200m는 왼쪽 허벅지 근육통으로 올림픽 출전 티켓을 동료에게 양보했다. 게이는 이날 우승으로 근육통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렸다.

떠나는 '이' 체육계 돌아온 '조'

이에리사 태릉선수촌장 사퇴

베이징올림픽의 벽찬 감독이 체 식기도 전에 이에리사(54·사진) 태릉선수촌장이 물러났다. 이에리사 선수촌장은 올림픽이 끝나고 돌아와 지난달 29일 이연택 대한체육회장과 면담을 갖고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체육회는 최종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공식 발표했다.



앞서 이 촌장은 지난 4월 김정길 전 체육회장이 사퇴한 뒤 이연택 체육회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당부에 촌장직을 계속 유지해 왔다. 최초의 여성 선수촌장인 이에리사 촌장은 "그동안 선수촌을 이끌면서 베이징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에 만족한다. 이제는 용인대로 돌아가 후배 양성에 힘쓰는 등 본업에 힘써야겠다"라고 말했다.

1973년 사려예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여자단체전 우승의 주역이었던 이에리사 선수촌장은 용인대 교수를 지내면서도 2004년 아테네올림픽 여자탁구 감독을 맡는 등 지도자 생활을 하다 2005년 3월 태릉선수촌장으로 발탁됐다.

이에리사 선수촌장은 3년6개월 재임기간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으로 선수촌을 새롭게 탈바꿈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조혜정씨 배구 경기위원으로



"아직도 코트에 서면 금방 네트에 닿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왕년의 여자 배구스타 '날으는 작은 새' 조혜정(55·사진)이 한국배구연맹 경기위원으로 배구판에 돌아왔다. 지난 7월 경기위원으로 선임된 조 위원은 지난 달 28일 양산실내체육관에서 개막한 기업은행배 양산프로배구대회부터 경기감독과 비디오 관독을 맡고 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여자배구가 한국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구기종목 메달(동메달)을 따내는 데 주역 역할을 했던 조 위원은 70년대 가장 최고의 여자배구스타. 1977년을 마지막으로 국내 무대에서 은퇴한 그는 한국에 비치발리볼이 도입되던 1990년 비치발리볼연맹에서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지만 그 뒤로는 배구를 잊은 채 프로골퍼로 성장한 딸 조윤희(26)씨의 뒷바라지에만 전념해 왔다.

지난 8월 베이징 올림픽 응원차 베이징에 다녀온 조 위원은 "개막식에서 단복을 입은 한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장면을 보는데 배구 선수들만 찾을 수 없었다"는 느낌을 전했다. 조 위원은 이어 "하지만 베이징에서 돌아와 프로배구를 보니 새 팀이 창단되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며 "활발하게 돌아가는 배구판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女 헤라클레스' 장미란 훈련 재개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25·고양시청·사진)이 1일부터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오승우 여자 역도대표팀 감독은 이날 "장미란이 그동안 각종 환영 행사에 참석하느라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했는데 전날 선수촌에 입촌해 오늘부터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미란은 이날부터 오승우 감독, 역도 대표팀 동료와 함께 오전 10시~12시, 오후 3시~5시30분 하루 두 차례에 걸쳐 4~5시간씩 훈련을 진행키로 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미란이 일찌감치 훈련을 재개한 이유는 10월 전국체전, 11월 아시아 올림픽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꾸준히 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 감독은 "장미란 본인이 올림픽 금메달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남은 두 개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욕이 강하다"면서 "일단은 무리하지 않고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 올리는 수준으로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자부(도로공사·양산시청)(16·00·KBS N SPORTS)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히로시마)(17·45·SBS스포츠)
2008 프로야구(LG·롯데)(18·30·MBC ESPN)
<우리>SK(18·20·Xports)
<KIA>삼성(18·00·KBS N SPORTS)

페더러 16강 진출

US오픈테니스 男 단식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9·스위스)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테니스대회 남자단식 16강에 올랐다.

페더러는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플러싱 메도 빌리진 킨 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7일째 남자단식 3회전에서 라팩스테파넬(30위·체코)을 3-0(6-3 6-3 6-2)으로 가볍게 물리쳤다.

2004년부터 이 대회 단식 우승을 놓치지 않고 있는 페더러는 이고르 안드레예프(23위·러시아)와 8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올 시즌 그랜드슬램 대회 타이틀 없이 소규모 대회에서만 두 차례 우승한데다 6월 6년속 우승 실패, 올림픽 8강 탈락, 랭킹 2위로 추락 등 갖은 수모를 겪고 있는 페더러지만 US오픈에서는 최근 30연승을 거두며 건재를 과시했다.

여자 세계 2위 엘레나 야코비치(세르비아)는 단식 8강에 선착했다. 캐롤라인 보즈니아키(18위·덴마크)에 2-1(3-6 6-2 6-1)로 역전승을 거둔 야코비치는 생애 첫 메이저대회 결승 진출의 좋은 기회를 잡았다. 결승까지 가는 데 걸림돌이 될 스페틀라나 쿠즈네초바(4위·러시아)가 탈락했고 '흑진주' 윌리엄스 자매(미국)는 결승 이전에는 만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for 'Small Business, Big Future' with various business listings including IT, education, and services in Gwangju.